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 용 의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가 아내한테 용돈을 달라고 조른다. 내일이 '빼빼로 데이'라서 친구들에게 빼빼로를 선물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빼빼로 데이'는 그 어느 해보다 극성스럽다. 2011년 11월 11일, 숫자 1이 6개 겹친다고 해서 천년에 한 번 찾아오는 '밀레니엄 빼빼로 데이'라고 한다. 물론 이는 그 과자를 만드는 제과회사의 '데이 마케팅'에서 비롯되었다. 제과회사에서는 천년에 한 번 찾아오는 날을 놓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우정을 전하라는 광고가 으스스하다.

한편, 일부에서 '빼빼로 데이'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국적도 분명치 않은 기념일을 만든 제과회사의 상술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밀레니엄'이란 표현을 문제 제로 삼아, 1111년 11월 11일이야말로 진정한 '밀레니엄 빼빼로 데이'로, 그날은 이미 지나갔다고 지적한다.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임을 상기시

키며, 이 날을 '빼빼로 데이'가 아닌 '가래떡 데이'로 삼자는 이도 있다. 11월 11일은 한자로 소자가 겹치는 날(十一월 十一日)로, 농민들이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취지를 살려 1996년부터 정부

'빼빼로 데이'에 딸에게 갖는 기대

에서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그런데 '빼빼로 데이'가 일본의 제과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빼빼로 데이'의 기원은 일본에서 확인된다. 일본에는 한국의 빼빼로와 비슷한 과자로 프리츠(Pretz)와 푹키(Pocky)가 있다. 둘 다 일본 오사카에 본사가 있는 에자키 그리코(Ezaki Glico)라는 제과회사에서 만드는 과자이다. 프리츠는 1963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막대 모양의 과자다. 그리고 푹키는 이 프

릿츠에 초콜릿을 입힌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푹키라는 과자 이름은 막대 모양의 물건을 부러뜨릴 때 나는 소리 '푹킨(pokkin)'이라는 일본어 외성어에서 착안하였다고 한다.

에자키 그리코 제과회사에서는 관촬활동의 일환으로 1999년에 11월 11일을 '푹키와 프리츠의 날'로 지정했다. 11월 11일을 선택한 이유는 두 과자를 나란히 늘어놓았을 때에 1111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인다운 발상이다.

일본에서도 11월 11일 이 날은 '푹키와 프리츠의 날'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념

의 날'과 '언어의 날'.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다했다. 이 날 한일 양국에서 제과회사의 상술이 난무하는가 하면, 또 한 편에서는 자연을 생활 터전으로 삼아 살아 가는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한국에서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하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뒤적거리다가 처음으로 알았다.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빼빼로 데이'는 알았으면서도 이 날이 '지체장애인의 날'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숫자 1처럼 곳곳하게 일어서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했다.

연구실 책상 위에 학생들이 선물한 빼빼로 과자 몇 개가 놓여 있다. 그 과자를 바라보며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 이전에 '농업인의 날'이자 '지체장애인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스스로 다짐해 본다.

더불어 우리 딸아이가 친구들과 빼빼로 과자를 주고 받으며, 이 날이 '빼빼로 데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라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진용태

이슈우회에 '외나무다리 위의 두 열소'라는 이야기가 있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열소가 양보하지 않고 싸우다가 모두 외나무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물에 빠진다는 이야기이다.

공동체 사회에서 양보와 자기희생은 공동의 선이기에 두 열소 우회와 같이 어느 정도 개인에게 강요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는 일방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기란 그리 쉽지않은

양보의 미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법기관에 판단을 구한다.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도 이와 같은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자는 의뢰인에게 소송제기 이전에 다시 한 번 협의하기를 부탁한다. 특히 분쟁이 증오·자존심 등 감정적 요인에 기인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얻을 이익이 적거나 소송을 하더라도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유한다.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협의에 입할 때에는 양보가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하나도 잃지 않으려는 자세로는 협의할 수 없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다.

필자가 수임한 사건 중에는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사소한 일 때문에 싸워 결국은 한 쪽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

다. 결국,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고, 서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에 임하였다. 이들은 다툼이 있는 동안 담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이면서도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등 불편한 생활을 하였다.

필자는 수임 당시뿐만 아니라 재판 도중에도 의뢰인에게 화해할 것을 권유하였고, 재판부 역시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유하였다. 결국, 당사자들은 다투는 시간만큼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재판 도중 화해를 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판을 통해서라도 화해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만약 당시 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과 법정 밖에서의 그들의 다툼은 계속되었을 것이고 분쟁이 확대되어 서로 과벌의 길로 접어들었을 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쟁이 확대되는 만큼 화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다. 마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열소가 다리 중간에 이르렀을 때에는 되돌아가기가 어렵듯이 분쟁이 확대되면 화해를 위해서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게 된다. 그것이 돈이든, 감정이든! <변호사>

기고



안기석

올해로 5·18민주화운동 31주년을 맞은 광주.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해를 보내고 있다.

우선, 제31주년 5·18행사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5·18 추모곡으로 불려왔으며, 그동안 오월의 노래, 민중의 노래로 공식화되어 국민적으로 애창되는 노래였다.

시는 제31주년 5·18행사 기념식이 화합과 상생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임을 위한 행진곡'을 추모자 전원이 제창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고, 국가보훈처는 이를 수용했다. 지난해 제30주년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면서

5·18은 세계 민주주의 교과서

5·18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발, 반쪽행사로 진행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지난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5·18광주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민주역사로 자리매김 됐다. 광주 공동체가 세계 인류문명사를 밝게 비추는 인간의 중심도시로 뛰어오르게 됐다는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강운태 시장은 "5·18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광주의 도시가치는 한층 높아지고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은 세계 속에 우뚝 서서 빛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시는 이를 계기로 5·18 아카이브 구축, 2013년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회의 광주유치 추진,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등의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중

학교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8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범은 유인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더니 이제는 정부마저 그릇된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강운태 시장은 지난 10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삭제를 규탄하며 교과부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성명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이 땅에 민주주의의 뿌리내리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특히 그 소중한 기록이 지난 5월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세계민주화운동사의 기념비이자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는 이때 정부 스스로 그 가치를 폄하하려는 역사인식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지난 13일 광주지역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5·18아카이브

설립추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 집필 삭제 철회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통해 '교과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누리꾼들의 글 작성뿐 아니라 SNS 퍼나르기, 친구 추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뜨거운 열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삭제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브랜드를 갖게 된 것은 역사의 고비마다 정의로운 시민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 교육 자료로 인정받은 5·18민주화운동은 그 중심에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교과부는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5·18을 비롯한 민주역사를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수록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대변인>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오동은·광주시 동구 금동

내리막길 가속 페달 자체해 기름값 아깝시다

지금 휘발유 값은 1리터에 1900원대이고 어떤 곳은 2000원대를 넘나드는 곳이 있을 만큼 비싸다.

이럴 때일수록 '절약운전'이 필수인데 가속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다. 가속도의 탄력을 이용해 자동차가 스스로 일정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요즘 자동차들은 성능이 세계적인 수준 이상으로 향상되어서 전자제어장치에 연료 공급량단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시속 70km 이상일 경우 가속페달에서 발만 떼면 연료공

급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얼마 전에 TV에서는 시청자들에게 직접 실험을 통해 이 것을 보여줬다. 내리막길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연료분사차단기능을 활용했을 때 연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하는 실험이었다.

50km 주행 결과 소형차의 경우 가속페달을 계속 밟았을 때와 비교해 연비가 25% 정도 좋아졌다. 중형차의 경우 40%나 향상됐고, 대형차의 경우 무려 50% 가까이 연비가 나아졌다. 내리막길에서 가속페달 사용을 자제하면 기름값을 아끼고 배출가스와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운전자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오동은·광주시 동구 금동

시설

영세한 광주 광산업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광산업은 광주의 성장 동력산업이라 할 수 있다. 광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관련 기업 유치 등 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광산업 업체의 대다수가 기술력이 낮고 영세성을 면치 못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지역 광산업 업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산업 업체 360개(지난해 기준) 중 연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업체는 무려 122개로 41.9%에 달했다. 업체별 고용 인원은 10명 미만이 51.9%, 종업원 5명 이하도 32.2%를 차지했다.

업체들이 영세하고,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 품질 인증을 또한 전국 최하위권이다. 광주 LED 관련 업체 131개 중 KS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5개 사로 경기 95개 사, 인천 16개 사, 경북 13개 사 등 타지역과 비교해 인증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광주 광산업이 무너진 성장 동력산업

으로 치부해온 것이다. 지역 광산업의 영세성은 수도권에 비해 여러가지 면에서 여건이 불리하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대기업 등이 투자를 의문하고 있는데다 유관업체가 별로 없어 판매나 기술력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광산업 매출액이 29조3378억 원, 경기도 7조6902억 원 등 수도권이 전국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으니 지역 광산업의 추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정부는 말로만 지역 상생이니, 국가 균형발전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기업의 이전 유도 등 실질적인 육성책을 강구해야 한다.

광주시 역시 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등 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 농민들 '외침'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지난 11월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1000여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축제의 장이어야 할 행사는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쌀값-배추값 폭락에, 농업부분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코앞에 닥쳐 농심이 멍든 탓이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1월 11일 치러진다. 이날은 풍년 농사 축하와 농민의 노고를 치하하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농심이 멍든 원인은 우선 쌀값 폭락이다. 농민들은 40kg 가마 당 4만7000원으로 책정된 공공비축미 가격으로는 생산비도 안 된다며 최소한 5만50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수매정책에 반발, 수매거부 운동과 함

께 아작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배추도 울 생산량이 40% 이상 늘어 가격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포기 당 1000원도 안 돼 중간상인들의 발걸음까지 끊긴 상황이다.

여기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FTA가 체결되면 전남도내 농업소득 피해액은 향후 15년간 무려 1조4085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정부는 축산 분야에서 국내산의 차별·고급화 정책 추진 및 원예·수산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 등 대책 마련보다는 비준안 통과에만 혈안이 돼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남 농·축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 예산이 한 톨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바로 이의 반증이다.

농민들의 축제 한마당이어서 할 농업인의 날, 이날을 제정할 뜻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이다. 1~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가 결여되면 혼수상태에 빠지며, 10%이상 모자라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한다. 물은 피와 조직액의 순환을 쉽게 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설시킨다.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도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물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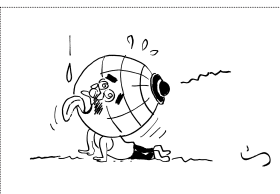
그러나 물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 지구는 70%가 물이지만 이 가운데 97%는 바닷물, 2%는 빙하나 지하수여서 마실 수 있는 물은 1%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1 UN 미래보고서"는 지구온난화와 산업화, 경제발전 등에 따른 수자원 오염으로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로 인해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구촌 인구의 3분의 1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220만 명의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식수와 불결한 위생시설 탓에 죽어가고 있다.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물 때문일 것이라는 '물전쟁'의 경고는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섰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초국적의 순환을 쉽게 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설시킨다.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도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물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물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 지구는 70%가 물이지만 이 가운데 97%는 바닷물, 2%는 빙하나 지하수여서 마실 수 있는 물은 1%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1 UN 미래보고서"는 지구온난화와 산업화, 경제발전 등에 따른 수자원 오염으로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로 인해 2025년에는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물 부족 상태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구촌 인구의 3분의 1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220만 명의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식수와 불결한 위생시설 탓에 죽어가고 있다.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물 때문일 것이라는 '물전쟁'의 경고는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섰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초국적의 순환을 쉽게 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설시킨다.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도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물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블루 골드



국토해양부가 에너지 소비가 많고, 고비용이 드는 기존 해수 담수화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담수화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한다. '블루 골드(Blue Gold)'로 불리는 21세기 물산업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